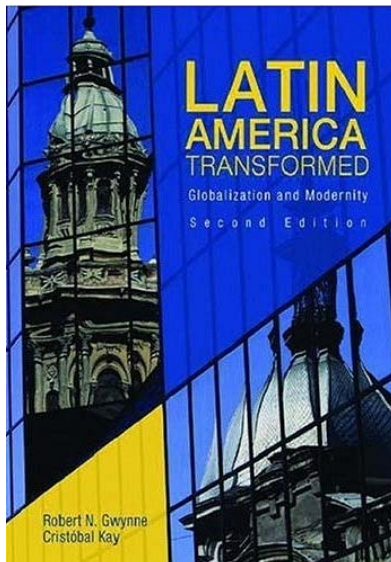




■ 로버트 그윈 · 크리스토팔 케이. 『변화하는 라틴 아메리카: 세계화와 근대성』

Gwynne, Robert N. & Cristóbal Kay (eds.). 2004. *Latin America Transformed: Globalization and Modernity* (2nd edition). New York: Edward Arnold.

박 구 병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흔히 거론되는 것처럼 1980년대에 형성처럼 등장한 신조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미 196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사용된 바 있는데, 그 때 세계화란 대체로 재화와 용역뿐만 아니라 화폐와 채권 같은 금융상품과 그 파생상품이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거래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뒤, 세계화의 의미는 경제적 통합 현상을 넘어 그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영향과 정치적 변화, 그리고 문화적 충격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1982년 멕시코의 외채위기를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급격하게 추진된 세계화 전략은 193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수입대체공업화 전략과 정부 주도의 관리경제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으로서 향후 동유럽 구공산권과 다른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탈규제, 민영화(사유화), 시장자유화 정책의 실행을 선도했다.

이런 세계화의 흐름은 십 수 년 뒤에 외환위기와 함께 느닷없이 들이닥쳐 한국인들의 삶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듯이 대다수 라틴아메리카 인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IMF 구제금융 꾸러미에는 긴급 구호자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적 규범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뜯어고쳐야 하는 고통스런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화란 어떤 과정이며 그 추진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니엘 예르긴, 조셉 스타니슬로(주명건 역)의 『시장 對 국가』(세종연구원, 1999), 토머스 프리드먼(신동욱 역)의 『렉스와 올리브 나무: 세계화는 덫인가, 기회인가?』(창해, 2000), 피터 고완(홍수원 역)의 『세계 없는 세계화』(시유시, 2001), 그리고 데이비드 헬드, 앤터니 맥그루, 데이비드 골드블라트, 조너선 페라틴(조효제 역)의 『전지구적 변환』(창작과비평사, 2002) 등을 통해 한국에도 이미 소개된 바 있다. 특히 『전지구적 변환』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환경 등 다각도에서 세계화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입문서로 성가(聲價)가 높다.

여기서 소개하려는 『변화하는 라틴아메리카: 세계화와 근대성』은 이런 세계화 현상이 최근까지 라틴아메리카라는 독특한 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 보여주는 종합적인 입문서이다. 로버트 그윈과 크리스토팔 케이가 편집한 이 책은 16세기 이

화를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이론적 접근이 어느 정도 적합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도 있다.

제2부는 라틴아메리카 정치 환경에서 나타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주곡,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기술 관료(technocrats)의 정치적 부상, 그리고 민주화 이행 이후 사회의 탈정치화 현상을 다룬다. 이어 제3부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전후로 대중의 삶이 지니는 역동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아래로부터, 그리고 세계화의 현 국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어떻게 대중이 생계를 형성하는지 고찰한다. 이 부분에서 지리학자인 앤소니 베빙턴(Anthony Bebbington), 새러 래드클리프(Sarah A. Radcliffe), 실비아 찬트(Sylvia Chant)는 정치경제적 접근법이 간과하기 쉬운 광범위한 변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검토하려는 의도에서 공간과 사회, 그리고 다양한 생계 유형에 주목한다.

1999년에 간행된 초판과 달리 2004년의 재판에는 신자유주의 도입 이래 도시의 생계와 공간의 변화라는 주제가 추가됨으로써 좀 더 밀도 있는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이 책은 구조적 수준과 풀뿌리 차원, 달리 말하면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접근과 미시적인 인류학 또는 민속지적인 차원에 고루 주목함으로써 최근 이십여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펼쳐진 발전모델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은 기업 운영의 관행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고용 제도의 변화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그 결과 수많은 대중이 일자리 전환이나 실업이라는 고통스런 과정에 적응하는 현실, 달리 말해 세계화의 여파와 생계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재검토하도록 이끈다. 동시에 한국에 앞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과 사회적 충격을 겪은 라틴아메리카의 변모

를 추적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가 2001년에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내수 침체의 지속, 실업률의 고공행진, 빈부격차의 심화 같은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에 앞서 대대적인 전환의 과정을 겪으며 그리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본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는 반면교사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구성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안 부재(TINA=There is no alternative)를 설파하며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모델이라는 최강자의 논리에 따라 재편하려는 시도가 대중을 장밋빛 미래를 실현하는 통로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의 심화, 고용창출의 부진, 원주민의 저항과 반(反)세계화 운동과 같은 큰 문제점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 자유시장과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부의 조정이나 개입, 분배 위주의 정책과 공적 소유에 대해 백안시하는 신자유주의 모델만으로는 계급과 지역 간의 극단적 분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윈과 케이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대안으로 신구조주의(neostructuralism)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윈과 케이에 따르면 신구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주변부 내에서 이른바 내생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인적·지적 자본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특히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노동력 이주를 막는 장벽을 낮추고 중심부에서 농산품 수출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전 세계적 의제로 제안한다. 간단히 말해 신구조주의는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세계화

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1950-70년대 라틴아메리카를 풍미한 바 있는 구조주의나 종속이론과는 달리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윈과 케이는 더 많은 자유화에 제동을 걸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일부 경제적 통제와 사회 정책을 가미한 브라질의 페르난두 엔히케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정부(1995~2002)와 1990년 이래 칠레의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연합’) 정부의 노선을 신구조주의적 접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은 연도와 표기상의 오류가 몇 군데 눈에 띄는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란 단지 기술의 발전이나 초강대국의 전략만이 아니라 그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국가 간의 복잡한 격동과 상호작용의 소산임을 환기시켜준다. 아울러 세계화 과정에 대해 좀 더 면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입문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박구병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강사이며, 저서로는 『서양문화사 깊이읽기』 (공저) 등이 있다.
